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그간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고 보고해 놓고 사무실에 수료증만 액자에 걸어놓은 현장이 많은 것으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안전관리자만 선임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 현장에 상주하여 수시로 점검, 정기점검, 교육하여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면 실효가 클 것이다. 재해자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비보다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월급이 적다고 생각된다. 물론 근로자에게 확실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개인에 대한 인식부여도 필요하겠고 또한 안전담당자(각 직종의 반장)에 대한 인식의 편화가 되어야 하겠다.

작업의 추진에만 관심을 두고 자신의 부하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신경쓰는지의 여부는 확인치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작업을 빨리, 또 능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결부시키는 것이 상례이다. 즉 눈가림식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공사를 하고 본인의 부하직원들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공사에 임한다면 하수급인인 회사에 대해서는 비록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경제적 손해는 있겠지만, 사고시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수급인 입장에서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개개인의 안정은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회사를 상대로 간략하게 서술해 보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여라 생각된다.

혼자만의 몸이라 생각지 말고 부양가족을 걱정하면서, 오늘 저녁 퇴근길에 꼭 사탕 한 봉지라도 사들고 가 "아빠 다녀오셨어요?"라는 자식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워준 이번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여러 강사님들의 열화같은 강의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무재해 사업장을 이루도록 다짐해 본다.

태영호/현진종합건설(주) 건축부 과장

그동안 나름대로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재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항상 잠재적 재해가 도사리고 있다는 중압감과 일어날 뻔했던 재해들을 돌이켜보며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았으나 안타까운 마음만이 가득하다.

우선은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하며 교육하던 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과 책임감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번씩을 반복 지시해야 마지못해 따르는 신세대 관리감독자(직원),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적 안전불감증의 작업반장들과 근로자들 모두, 다 먼곳에 있는 타인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나 자신과 나의 동료에게 재해가 도사리고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지식을 터득한다면 굳이 점검하고 지시하지 않아도 "안전제일"로 무재해 현장이 달성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건설재해의 감소나 무재해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원적 문제점이 해결되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 선진화를 제도적, 단계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항해사들의 책임이고 과제라고 사료된다.

이번 제58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으며 가장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은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설공사 정책의 정착과 '인간존중'을 100% 실현하며 일할 수 있는 건설공사현장을 위하여 본인부터 마음을 추스려 힘차게 일보하리라.

이호수/한영토건(주) 토목부 부장

건축업에 몸담은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판단한 점과 보아온 시점에서의 의견을 적어 보겠다. 우리 고장 제주는 '신구간'이란 기간이 있다.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입춘 전후 일주일, 이때에 우리 도의 모든 입주자 및 도민들이 이사전쟁을 치룬다는 것!

이에 따라 우리 건설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타격은 시공에 따른 '공사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모든 공정 과정에 충분한 공정(기간)과 충분한 코스트를 주며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생각은 한다. 그런데 요근래 들어 매스컴이나 T.V에서 우리 건설인의 위신을 무너뜨리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 생각해 보았는가?

모든 공사가 그렇겠지만, 특히 APT 공사는 더더욱 그렇다. 입주자들과의 혼전속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

공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한 촉발한 공정표 작성 속에서 그에 따른 공사능률 저하, 시공상의 문제점 파악 미비 및 일단 입주시킨 후의 차후대책 강구(하자보수)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 시공자 및 건물주의 당연이론!

입주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환경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는 반면, 건축업자들은 생명을 조금이나마 유지하려고 오로지 입주자들의 요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려고만 한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장에 있다고 본다.

짧은 공기에 시달리며 공사 마무리 후 쉴 시간도 없이 하자보수에 매달리는 우리들!

모든 건설기술자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건물주의 욕심을 채워주는 우리가 아닌, 우리가 살 집, 우리의 생명을 위해 보다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싶다.

짧은 기간, 저렴한 가격, 튼튼한 건물, 모든 조건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관리상 재해가 없는 우리 현장,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실천하는 우리!

잘못이 있으면 기술자가 협력하여 좋은 방향으로, 책임 회피가 아닌 모든 일이 우리 일이란 책임의식 속에 모든 공사에 임한다면 재해는 물론, 우리나라 모든 건설기술자들이 지금껏 땅에 떨어진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자.

왜, 우리 자신을 화살의 표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김영철/우진종합건설(주) 건축부 기사